

“생활 속 창의적 사고 중요 ... 생각 바꾸면 창작의 신비 느낄 것”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 이이남 미디어아트 작가

‘뿌리’ 중요성 알아야 나만의 창조성 끌어낼 수 있어

예술도 간헐 공간서 벗어나 대중과 소통해야

“창작이라는 것은 새로움에서 탄생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뿌리에서 창작이 나오는 것이며, 어쩌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어모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이남 미디어아트 작가가 지난 14일 라 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특강에서 ‘뿌리들의 일 어섬’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뿌리들의 일 어섬’(The Rising of the Roots)은 지난 5월부터 독일 베를린 안도파인아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 작가의 개인전 주제로, 자신만의 창조성을 끌어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독일의 어느 철학자가 붙여준 제목이다. 최근 나의 관심사가 뿌리에 대한 것인데 나의 이야기, 내 안의 창작세계를 구축 하는데 ‘뿌리’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내가 표현하는 작품들 역시 나의 뿌리인 고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다.”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며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로 우뚝 선 그가 태어나고

자란 담양 봉산면은 지금은 광주에서 10 분 거리에 불과하지만 과거에는 1시간 넘 게 걸리던 거리였다. 어린이날 한 번과 삼 촌집을 방문하던 것까지 총 세차례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떠나본 적이 없던 마을이다.

“어릴적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앞으로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그는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갔던 오일장에 사람이 아주 많았거나 주위에 대나무 밭도 많던 곳으로만 기억했는데 성인이 되고 보니 그 무성하기만 했던 대나무밭이 가지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전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타고 자란 뿌리에 대한 애착 때문인지 그의 작품에는 고향 담양에 대한 애정이 자주 묻어 나온다.

2006년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에 참가해 선보였던 김홍도의 ‘묵죽도’를 재해석한 작품이 그 시작이었다. ‘묵죽도’와 모네의 ‘해돋이’를 결합해 음악이 는 병



지난 14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4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이이남 미디어아트 작가가 ‘뿌리들의 일 어섬’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풍 그림을 전시하면서 미술계를 놀라게 했다. 10월 9일까지 스위스 취리히 리이트베르그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의 정원 전에서도 소쇄원을 바탕으로 제작한 8폭 병풍 형식의 비디오 작품 ‘2016 소쇄원’을 선보이고 있다.

동·서양 미술사를 현대 미디어로 재해석한 그의 독창적인 작품은 미술계에서도 인정받아 2007년 뉴 아트페어에 나가 처음으로 작품을 판매했으며 이후 세계 곳곳에서 초대를 받으며 작품 활동과 전시를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

그는 “대타로 참여했던 아트페어에 6점의 작품을 가지고 갔는데 모두 팔렸다. 기존에 생각했던 현대미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었다”며 “어떻게 대중과 소통하고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아트페어를 계기로 대중과의 소통을 생각하게 되고 보면 타당하게 믿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예술과 대중의 소통을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영화의 재해석이었다.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익숙한 그림인 영화를 차

용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배경 위로 비행기가 출현하고 낙하산이 내려 오더니 폭탄이 투여되면서 폭발음이 산발하는 작품을 통해 ‘미소 뒤에 감춰진 위선’을 풍자했으며, 성모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 피에타는 마리아의 품에 있던 예수가 공중부양하는 모습으로 바뀌 예수가 부활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액자 안에 갇혀있던 옛 그림들이 모니터 안에서 살아나는 게 미디어 아트”라며

“미술관이라는 간헐 공간에서 벗어나 대중들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며 간단하지만 창의적인 이러한 것들의 대중들의 호기심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국 창작이라는 것은 새로움에서 탄생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뿌리가 있다”며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창의적인 사고는 굉장히 중요하며, 조금만 시간을 내서 들여다 보면 신기한 것 투성이다. 생각을 바꿔 창작의 신비로움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농어촌공 전남본부 하반기 추진계획 회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지난 13일 본부 회의실에서 18개 지사장 및 내근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경영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선수단 해단식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광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제 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을 열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윤택림 전남대병원장 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선출

윤택림 전남대병원장이 전국 국립대병원장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국립대병원장협의회는 지난 10일 경상대병원 5층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윤택림 병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는 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진료를 통해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립대병원 공통 관심사항과 발전과 정책 등을 협의한다.

윤 선임회장은 “중책을 맡은 만큼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활력 넘치는 협의회를 이끌어가고자 하겠다”며 “협의회 본연 업무인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 제31대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취임한 윤택림 병원장은 ‘The Best



On Time’, ‘Speedy Response’를 슬로건으로, 감동주고 사랑받는 환자 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전남대병원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 등급(S등급)을 받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병원정렴도에서도 지방국립대병원 1위, 전국 국립대병원 2위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11차례 예방컨퍼런스를 벌이고, 내팔·방글라데시 등 국내외 활발한 의료봉사를 펼쳤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업 전국 국립대병원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주몽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 日 사사키 교수 초청 강연회

나주몽(사진)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전남대 경영대학 2호관 최상준홀에서 창조도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사사키 마사유키 도시사(同志社)대학 교수를 초청해 ‘21세기 창조도시들 - 그들의 다양성과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보성 소연이네 새 보금자리 선물

남은 휴집에서 살던 소연이(가명·여) 가족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받았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는 15일 ‘이날 전남개발공사와 보성군 등의 후원으로 소연(12) 가족을 위한 주택을 완공, ‘초록보금자리’ 입주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소연이는 그동안 50년이 넘는 남은 휴집에서 살며 욕실이 없는 탓에 겨울에도 마당에 설치된 수도를 사용했다. 가림막도 없어 샤워는 쪼도 꾸지 못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했다.

이런 소연이를 위해 보성군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은 온라인·방송매체 펀딩 등 모금 활동을 벌였다. 전남개발공사 임직원들도 사회공헌기금 ‘끝전모금’ 1000만원을 기부하면



서 5800만원의 후원금이 마련됐다. 재단 측은 또 2013년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한 원유민 제이와이아키텍 건축사무소장과 보성군 건축기술지원센터장 김기호를 초청해, 전남개발공사 임직원들도 일손을 보탬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조성진 피아니스트 ‘포니정 혁신상’ 받는다

포니정재단은 제10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지난해 10월 소망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조성진 피아니스트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철수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조성진군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걸어온 젊은 음악가로 세계적인 권위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우리나라 클래식계의 위상을 높였고 클래식에 대한 대중의 커다란 사랑과 관심을 일으켰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포니정 혁신상은 현대사 동자의 설립자인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애칭인 ‘PONY 鄭(포니정)을 따 2006년 제정한 상으로 혁신적인 사고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여관구(대성약국)·최영숙씨 장남 준수(하순균정)군 이형보·문정란씨 장녀 희선(화순균정)양=18일(토) 오전 11시50분 광주시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1층 사별.
- ▲전주연(전 광주시 서구청장)·강경자씨 장남 용선군 오재근·김민순씨 차녀 민희양=19일(일) 오전 11시50분 광주시 서구 능성동 라페스타웨딩컨벤션 4층 디아망홀.
- ▲박철수·김정란씨 장남 지환군 윤상일(고흥군 금산면장)·최정숙(국립나주병원)씨 장녀 송이양(L.G전자)=25일(토) 낮 12시30분 광주시 남구 천주교 봉선동성당.
- ▲정호재(삼성에버랜드 퇴직)·양옥련씨 장남 천희준(삼성전자) 주신호(전 광양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질임씨 차녀 송이양(L.G전자)=25일(토) 낮 12시30분 서울 강남 테헤라리하우스 단독.

동창회

- ▲동신고 제12회 동창회(회장 김영삼)

하계야유회=19일(일) 보성군 제암산 휴양림, 오전 8시50분 윤양동 문화예술회관 앞 출발, 문의 010-2249-4420.

알림

- ▲일가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엔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 ▲광명심리상담센터=장애 및 일반 아동·청소년, 성인의 심리·언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치료 서비스 제공(심리·언어·미술·모래상자·놀이치료 등)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

- 후 6시, 문의 062-222-0034.
-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무료 상담=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지원 062-521-1365.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모집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동 010-9092-0343.
- ▲이발기술훈수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동작

- 지도 이용인=지체, 뇌병변 장애인대상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 없음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미로·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적, 기

-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적, 기

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부음

- ▲윤순례씨 별세 채일병(전 국회의원·전 광주발전연구원장) 모친상=발인 16일(목) 광주시 북구 문흥동 그린장례식장 062-250-4455.
- ▲이원범씨 별세 선영(전 전남일보 총무국·현 광주직업양성원장) 모친상=발인 16일(목)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만평장례식장 2층 202호 062-611-0000.
- ▲이양현(전남대 명예교수)씨 별세 김선자(전남대 명예교수)씨 남편상 계일(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계혁(KBC광주방송 기자)씨 부친상 윤세정(서울 운치과의원 원장)·김다운(광주 KS병원 전문의)씨 시부상=발인 16일(목) 광주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301호 062-670-0030.
- ▲문보민씨 별세 흥성만·성천·성오·성순씨 모친상 박필진씨 부부상=발인 17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301호 故배경순 님(여/85세) 子/子婦 : 김일식/이미숙, 민석/박연경, 삼석/문경순 女/婿 : 김행자 孫 : 김정우, 현식, 화일 ●발 인: 6월 16일 ●장 지: 화순동복선영 ●연락처: 227-4382	402호 故유영호 님(남/71세) 喪主 : 유영년 兄弟 : 유정순, 옥순, 정자, 영대, 정일 ●발 인: 6월 1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101호 故이귀성 님(남/81세) 子 : 이경석, 경호 女/婿 : 이미경/조재방, 숙경/주원우 ●발 인: 6월 16일 ●장 지: 보성홀어션영 ●연락처: 227-4000	102호 故김한석 님(남/69세) 子 : 이병림 女/婿 : 문준식 ●발 인: 6월 1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